

#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및 관련변인 연구

## A Study of Urban Employed 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ype And It's Related Variabl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계 선 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감 기 정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Sun Ja, Ky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 : Ki Jung, Kang*

### 〈 목 차 〉

I. 서 론	IV. 연구결과 및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ases on the employed 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ypes according to family financial management project and performance. And it's related variables will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the program which aids in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ed 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skills and family financial counseling.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total mean score of respondent'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was 3.54 out of 5. And the mean score of project and performance was respectively 3.42 and 3.62.

2) Among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ypes, effective type, project-centered type, performance-centered type, ineffective type were respectively 38.7%, 16.4%, 13.2%, 31.7%.

3) The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ype of the employed wives was affected by

information utilization, the degree of communication, type of occupation, and job attitudes.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IMF 이후 한국 경제는 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0년대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 국민경제체제와 상호작용하는 가계는 인플레이션·고용불안·소득감소 등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양은 가계의 경제복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Walson & Fitzsimmons, 1993), 경제적 자원은 주로 가구원이 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확보 및 경제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구특성의 변화 중 두드러진 현상으로 맞벌이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사회적·개인적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sup>1)</sup> 특히 IMF 이후 가장의 수입으로만 가족생계를 유지하는 홀벌이로는 불안해지자 가계에서 맞벌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택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취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는 가계총소득에 취업주부의 소득이 더해져 전통적인 전업주부 가계와는 다른 소득구조를 형성하며, 동시에 부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지출함으로써 다차원적인 가계재무상태를 이루고 있다(Foster & Mammen, 1992; Rubin, Riney & Molina, 1990). 주부의 취업이 자원을 획득하고 이에 따른 경제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취업주

부의 경제복지 수준은 가계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재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계재무관리는 가계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계선자·박미금, 1994; 김민정, 1994; Mugenda, Hira & Fanslow, 1990; Muske, 1996; Sumarwan & Hira, 1993; Walson, 1991)에서도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가 궁극적으로는 경제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심점이 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의 가계재무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가계재무관리가 관리 과정상에 중요함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재무관리를 계획·수행능력 차원에서 유형화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가계재무관리유형과 관련한 몇몇 연구들은 인지이론을 토대로 가계재무관리를 유형화한 연구(김순미·양정선, 1994; Prochaska-Cue, 1993)에 불과하다. 가계재무관리를 계획과 수행 차원에서 유형화하는 연구는 유형별 특성 및 관련 변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며,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 결과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재무설계 및 가계재무상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가계의 궁극적 목표인 경제복지 향상 및 기혼여성의 취업구조에 적합한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5년 41.9%에서 1997년 49.5%로 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배우가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7%로 미혼에 비해 약간 높다. IMF 경제체제 이후 98년 9월 현재 기혼여성의 취업은 97년 9월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상용직 근로자는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일용직의 기혼여성 비율은 높아져 이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 II. 이론적 배경

### 1. 가계재무관리유형 및 선행연구

가계재무관리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사용을 통해 관리행동의 산출인 자산축적과 경제생활만족 및 경제복지감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계재무관리의 과정에는 목표설정·표준설정·자원평가·정보수집 등의 계획과 이의 점검·조정·평가 등의 수행이 포함된다(이기춘 등, 1988; Garman & Fogue, 1994).

계획은 가계재무관리에 있어서 가계의 목표에 맞추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단계이다(고보선, 1996; 이기영·조영희, 1992; Fitzsimmons, Hira, Bauer & Hafstrom, 1993). 계획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은 목표의 설정으로, 가족원은 일반적으로 자산축적·은퇴계획·부동산계획·예산관리 등을 중요한 재정적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가계재무관리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계소득, 자산, 현재와 미래의 수익을,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준비금뿐만 아니라 가구구성, 현재와 미래의 세법, 사망률, 투자위험과 수익 같은 자원을 평가하고 제약요인을 파악해야 하므로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Kennickell et al., 1997).

수행은 계획단계에서 결정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효과적인 산출, 즉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을 점검하거나 이미 계획된 행동 기준과 순서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가계는 재정적인 위기나 변화에 대처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계의 재정자원과 재정요구에 적절한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Linda & Thomas, 1996). 즉 성공적인 가계재무관리 수행은 재정목표에 따라 설정한 장·단기적 가계재무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가계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생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함으로써 가계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Rodgers(1995)는 관리적 하위체계의 계획요소(Deacon & Firebaugh, 1988; Heck & Douthitt, 1988)를 기초로 하여 은퇴기의 재정계획을 연구하였다. 즉 3개의 계획유형을, 자원중심적 계획(안정지향적), 목표

중심적 계획(변화지향적), 자기계약적 계획(무작위)으로 유형화시켰으며, 인구학적·특성적 변인들이 자기계약적 유형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nnickell 등(1997)의 연구에서는 고소득층 8명을 대상으로 재정계획과 재정관리 수행에 대한 사례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고소득층은 정교한 방법으로 재정계획을 활용하고, 재정의 계획과 수행에 관한 전략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개인 및 가계의 인지유형에 따른 가계재무관리유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통제소재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인지개념을 범주화한 Prochaska-Cue의 개인재무관리유형인 PFMS모델(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tyle)를 토대로 작성된 PIFS모델(Prochaska-Cue Inventory of Financial Style)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Prochaska-Cue(1993)는 인지적 재무관리유형을 분석적 관리유형, 종합적 관리유형, 해석이 불가능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인마다 재정자원을 인지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였다. 김순미·양정선(1995)은 Prochaska-Cue(1993)의 척도를 근거로 정보인지와 정보평가 두 차원에 의해 가계재무관리자를 체계적 관리자, 감정적 관리자, 분석적 관리자, 종합적 관리자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가계재무관리유형과 재정문제를 연구한 박선옥(1996)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분석적 관리자 유형이 가장 많았고 체계적 관리자 유형이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계재무관리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가계재무관리유형은 가계관리자의 특성, 정보인지, 수용 태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 가계재무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무관리의 계획·수행 능력을 기초로 가계재무관리를 유형화하였으므로, 가계재무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계재무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을 살펴보았다.

〈표 1〉 가계재무관리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및 연구시기	연구 내용	가계재무관리유형	
		유형구분	구분관점
Hough(1979)	위계적 체계모델로 변환과정을 유형화	표준적 계획 전략적 계획 계획의 수행과 평가	Deacon & Firebaugh 체계론을 hierachial system model로 수정
Buehler · Hogan (1986)	홀로된 부모 가족의 계획유형	자원중심계획(안정지향적) 목표중심계획(변화지향적) 자원제약적계획(무작위)	Deacon & Firebaugh의 체계론적 관점
Deacon · Firebaugh (1988)	체계론에 근거하여 가족자원관리분석	계획 수행	
Prochaska-Cue (1988)	인지적 재정관리유형	총합적 관리자 체계적 관리자 감정적 관리자 분석적 관리자	PFMS Model
Prochaska-Cue (1993)	재정관리 유형 모델 검증에 위한 측정도구 개발	분석적 관리유형 총합적 관리유형 해석불가능 유형	Gross, Crandall & Knoll(1981), Deacon & Firebaugh(1988), Retting(1987), Mickenny & Keen(1974)
Rodgers (1995)	은퇴기 여성노인의 재정관리 계획 유형화	자원중심계획(안정지향적) 목표중심계획(변화지향적) 자원제약적계획(무작위)	Deacon과 Firebaugh (1981)의 체계론
김순미 · 김연정 (1991)	변환과정 유형화	표준적 계획 전략적 계획 표준적 수행 전략적 수행	Deacon 과 Firebaugh의 체계론에 근거해 Hough의 위계적 체계모델을 변환에 적용
김순미 · 양정선 (1994)	가계재무관리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총합적 관리자 체계적 관리자 감정적 관리자 분석적 관리자	Prochaska-Cue의 PIFS

## 1) 연령

가계재무관리와 연령 간에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고보선(1996)은 취업주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가계재무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배희선·최현자(1996)는 자녀교육 종료기 주부의 경우 매우 낮은 화폐관리 행동을 보인다고 하여, 연령과 가계재무관리능력의 부적 관계를 보고하였다. 계선자·강기정

(1998), 임정빈 등(1998)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에 따라 가계재무관리 유형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학력

다수의 연구에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가 높다는 보고를 하였다(고보선, 1996; Deacon & Firebaugh, 1988). 홍향숙(1997)과 임정빈 등

(1994)은, 가계재무관리 계획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계획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나 계선자·강기정(1998)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직업

계선자·강기정(1998)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에 비해 전문직 취업주부의 가계관리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관리능력을 계획·통제·지도·조정과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김경숙(1993)은, 취업주부의 직업이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관리직인 경우는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 사무직에 비하여 가정관리능력이 훨씬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취업주부의 경우 개인 소득관리 및 가계 재정행동에 어려움을 보고한 연구들(Alwitt & Donley, 1996; Garman, Leech, & Grable, 1996)이 있다.

### 4) 가계총소득·주부소득 대 총소득

가계재무관리와 소득 간에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소득은 여러 연구에서 가계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가계의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김순미(1993)도 금전계약이 적을수록 재무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보선(1996)은 소득이 적을수록 효율적인 가계관리를 한다고 하였으며, 계선자·강기정(1998)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에 따라 가계관리능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5)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지식은 가계의 재정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재무관리지식과 가계재무관리에 관련하여 Titus 등(1989)과 몇몇 연구(임정빈 등, 1998; Mugenda et al., 1990)에서는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은 가계재무관리 계획과 수행에 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 6) 의사소통도

의사소통도와 가계재무관리의 관계에서 볼 때, 부부간의 의사소통도는 주부의 가계재무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계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다(Mugenda et al., 1990). Dillard(1987)도 가계재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자원의 할당, 분배 및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7) 생활정보활용도

생활정보는 의사결정할 때의 불확실함을 감소시켜 주며, 현재 및 미래의 의사결정에서 주부의 욕망 충족 및 기타 목표달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Bowen 등(1997)은, 재정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은 가계재무관리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계선자·강기정(1998)의 연구에서도 가계재무관리능력이 높은 주부일수록 정보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계관리자가 가계재정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직·간접으로 제공받아 탐색하며, 축적된 정보에 근거해 가계재무관리를 할 때 더욱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8) 생활격차감

생활격차감은 가계관리자가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생활수준과 현재의 생활상태의 차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 격차가 궁극적으로 가계재무관리유형과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고보선·이영호, 1995; 김순미, 1993; 임정빈 등, 1998; Danes, 1991). 김순미(1993)는 금전계약이 적고 생활격차가 적다고 인지할수록 재무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Danes(1991)의 연구에서도 생활격차가 재무관리방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에 대한 제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조사도구의 구성

재무관리지식은 이기춘(1988)과 이승신 외(1996)의 연구를 기초로 총 9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맞는 답은 1점, 틀린 답과 모른다는 답은 모두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지식이 많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70 이다. 의사소통도는 Goldsmith(1996)의 연구를 기초로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5점으로 총 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높음을 뜻하며, Cronbach's  $\alpha$  는 .86 이다.

생활정보활용도는 김경숙(199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82이다.

성역할태도는 김양희(1997)의 연구를 기초로 총 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alpha$  는 .72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태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님을 의미한다. 남편역할분담인지는 Geenstein(1996)의 연구를 기초로 총 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하지 않음'의 1점에서 '전적으로 맡아함'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가정내 역할을 분담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78이다.

생활격차감 및 소득적정감은 Cantrill의 9점 Likert 자아준거적 성취척도를 기초로 작성된 Royal(1995)의 0점에서 10점까지 분포하는 11점 Likert 생활수준 사다리 척도를 이용하였다. 생활격차감은 개인이 궁극적으로 열망하는 생활수준을 응답하게 하고, 응답자가 느끼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평가하게 한 후, 이들의 차를 구하였다. 그 점수의 차가 클수록 생활격차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소득적정감은 생활수준 사다리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가계소득의 적정도

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이 적정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높음을 말한다.

직업태도 및 취업동기는 한국여성개발원(1998)의 연구를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직업태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5점까지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주부가 직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81이다. 취업동기는 1문항으로,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로 구성하였다. 취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를 비교집단으로, 비경제적 동기를 준거집단으로 가변인 처리하였다.

가계재무관리유형은 Walson(1991)의 계획·수행 지표(Planning, Implementing index), Walson과 Fitzsimmons 등(1993)의 가계관리능력 척도, Prochaska-Cue(1993)의 가계관리행동유형 척도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가계재무관리능력은 요인분석에 의해 두 개 요인으로 추출이 되었고, 계획 7문항, 수행 9문항의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의 계획·수행 능력이 효율적인 것을 의미하며, 가계재무관리능력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90이다. 계획의 Cronbach's  $\alpha$  는 .84이며, 수행은 Cronbach's  $\alpha$  가 .85이다.

가계재무관리유형은 가계재무관리의 계획과 수행 능력 정도에 따라, 효율형은 계획과 수행 점수가 각각 평균보다 높은 집단, 계획중심형은 계획이 평균보다 높으나 수행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 수행중심형은 계획이 평균보다 낮으나 수행은 평균보다 높은 집단, 비효율형은 계획과 수행 모두가 각각의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배우자가 정규직에 종사하며,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막내자녀가 대학교육기 이전에 해당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8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두 차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1998년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

었다. 설문지는 858부가 취업주부에게 집락표집과 비 비율 층화표집을 병행하여 배포되었으며, 이중 767부의 응답이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AS/PC\*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비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Cronbach's  $\alpha$  계수,  $\chi^2$ , Catmod, 중다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취업주부는 직종별로 생산판매직 26.7%, 사무직 25.3%, 준전문직 23.6%, 전문관리직 24.4%로 분포하였다. 평균 연령은 39세, 교육연수는 13.51년이며, 월평균 가계총소득은 355만원이었다. 재무관리지식은 최저 0점에서 최고 9점까지의 범위에서 6.56점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의사소통도·생활정보활용도·직업태도도 중간점보다 약간 높을 수준이다. 그리고 성역할태도는 약간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였는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직종은 생산판매직이며, 남편역할분담인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생활격차감은 평균값이 5.52점(0점-13점)으로 생산판매직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적정감은 5.13점(1점-10점)으로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주부 중 62.3%가 경제적 동기로 취업하고 있었으며, 생산판매직이 81.5%, 사무직 78.9%, 준전문직 55.9%, 전문관리직 30.5%의 순을 보였다.

##### 2. 가계재무관리유형의 일반적 경향

가계재무관리의 총 평균이 3.54점으로, 가계재무관리 계획의 평균 3.42점, 수행 3.62점으로 가계재무관리 수행의 점수가 약간 높았다.<sup>2)</sup> 이와같은 가계재무관리능력을 계획과 수행 차원에서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유형화를 하였다.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론에 근거하여 계획과 수행의 두 차원으로 범주화를 시도한 결과, 총 7문항으로 구성된 계획은 7점부터 35점까지 분포하였으며, 9문항으로 구성된 수행은 9점부터 45점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는 가계재무관리 계획과 수행의 각 차원에 대해 정상분포를 이루었으므로 계획과 수행의 점수 분포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두 차원의 평균(계획 : 3.42 / 수행 : 3.62)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유형은 계획과 수행 점수가 각각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므로 효율형으로, 2유형의 경우는 계획이 평균보다 높으나 수행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라 계획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3유형의 경우는 계획이 평균보다 낮으나 수행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므로 수행중심형으로, 4유형은 계획과 수행 모두가 각각의 평균보다 낮아서 비효율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가계재무관리 유형별 명칭과 주요특성은 <표 3>과 같다.

한편 조사대상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 유형별로 구분된 4개 집단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효율형은 297명(38.7%), 계획중심형은 126명(16.4%), 수행중심형은 101명(13.2%), 그리고 비효율형이 243명(31.7%)으로 분포하였다. 본 조사대상 취업주부는 효율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비효율형, 계획중심형, 수행중심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가계재무관리능력의 일반적 경향 (5점 만점)

가계재무관리능력		25th	50th	75th	평균	표준편차
전 체		3.16	3.63	3.94	3.54	.60
하위영역	계획	3.00	3.43	3.86	3.42	.71
	수행	3.22	3.67	4.00	3.62	.65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배경변인	전체가계 (N=767)	생산판매직 (N=205)	사무직 (N=194)	준전문직 (N=181)	전문관리직 (N=187)	F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연 령(세)	39.02	41.5 A	33.77 B	38.82 C	41.89 A	53.75***	
학 령(년)	13.51	11.3 A	13.13 B	14.19 C	15.66 D	437.76***	
가계총소득 (만원)	355	228 A	311 B	389 C	508 D	114.14***	
주부소득 대 총소득 (%)	41.00	35.00 A	42.00 B	43.00 B	45.00 C	30.86***	
재무관리지식 (0-9점)	6.56	6.08 A	6.57 B	6.77 B	6.87 B	6.60***	
의사소통도 (1-5점)	3.92	3.63 A	3.98 B	4.02 B	4.09 B	11.24***	
생활정보활용도 (1-5점)	3.12	2.91 A	3.29 B	3.08 C	3.21 C	11.07***	
성역할태도 (1-5점)	3.15	3.21 A	3.17 A	3.19 A	3.00 B	3.30*	
남편역할분담 인지(1-5점)	2.54	2.47 A	2.69 B	2.55 A	2.44 A	5.32***	
생활격차감 (0-13점)	5.52	5.68 A	5.66 B	5.50 B	5.22 C	3.30*	
소득적정감 (1-10점)	5.13	4.42 A	5.09 B	5.34 B	5.75 C	24.80***	
직업태도 (1-5점)	3.14	2.86 A	3.07 B	3.17 B	3.48 C	34.63***	
취업 동기	경제적 비경제적	476(62.3) 288(37.7)	167(81.5) 38(18.5)	153(78.9) 41(21.2)	99(55.9) 79(44.4)	57(30.5) 130(69.5)	*** $\chi^2=56.20$ df=3

\* 생활격차감은 -3점~1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0점~13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F값은 평균/Duncan's 값임.  $\chi^2$ 는 빈도(%) 값임.

\*p<.05 \*\*p<.01 \*\*\*p<.001

〈표 3〉 가계재무관리유형의 명칭과 주요특성

가계재무관리유형		주요특성
1유형	효율형	계획·수행이 평균보다 모두 높은 집단
2유형	계획중심형	계획이 평균보다 높고, 수행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
3유형	수행중심형	계획이 평균보다 낮고, 수행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
4유형	비효율형	계획·수행이 평균보다 모두 낮은 집단



		수행 (+)			
		수행중심형	효율형		
		101명 (13.2%)	297명 (38.7%)		
계획 (-)					계획 (+)
		비효율형	계획중심형		
		243명(31.7%)	126명 (16.4%)		
		수행 (-)			

〈그림 1〉 조사대상자의 가계재무관리유형(N=767)

### 3. 배경변인에 따른 가계재무관리 유형별 특성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계재무관리 유형별 특성은 〈표 4〉와 같다.

우선 연령을 살펴보면 효율형은 37.5세, 계획중심형은 40.2세, 수행중심형은 39.3세, 비효율형은 40.0세로 나타났다. 즉 효율형에 속하는 취업주부의 연령이 가장 낮아,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재무관리 능력이 높다고 한 배희선·최현자(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학력을 살펴보면 효율형은 중졸이하가 6.7%, 고졸이 21.2%, 대졸이 46.8%, 대학원이상이 25.2%로 나타났다. 계획중심형은 중졸이하가 15.8%, 고졸이 19.8%, 대졸이 43.6%, 대학원이상이 20.6%이었다. 수행중심형은 중졸이하가 32.6%, 고졸이 32.6%, 대졸이 21.7%, 대학원이상이 13.8%이었으며, 비효율형은 중졸이하가 25.9%, 고졸이 39.0%, 대졸이 27.5%, 대학원이상이 7.4%의 분포를 보였다. 즉 4개 유형간에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 능력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고보선, 1996; 홍향숙, 1997)와 유사한 분포임을 알 수 있다.

직종을 보면 효율형은 전문관리직이 30.6%, 준전문직이 25.2%, 사무직이 21.5%, 생산판매직이 22.5%이며, 계획중심형은 전문관리직이 30.1%, 준전문직이 33.3%, 사무직이 18.2%, 생산판매직이 18.2%로 나타났다. 수행중심형은 전문관리직이 17.8%, 준전문직이 29.7%, 사무직이 24.7%, 생산판매직이 27.7%였으며,

비효율형은 전문관리직이 22.6%, 준전문직이 24.2%, 사무직이 23.4%, 생산판매직이 29.6%로 나타났다. 즉 효율형과 계획중심형에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수행중심형은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비효율형은 생산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다른 직종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재무관리지식은 효율형이 7.05점, 계획중심형이 6.44점, 수행중심형이 6.52점, 비효율형이 6.04점으로 나타나, 효율형에 속하는 취업주부의 재무관리지식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무지식은 가계재무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한 선행연구(Mugenda et al., 1990; 임정빈 등, 1998)의 결과를 지지한다.

의사소통도는 효율형이 4.14점, 계획중심형이 3.83점, 수행중심형이 3.84점, 비효율형이 3.74점으로, 효율형이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선행연구들(Dillar, 1987; Mugenda et al., 1990)과 유사한 경향이다.

생활정보활용도는 효율형이 3.49점, 계획중심형이 3.07점, 수행중심형이 3.10점, 비효율형이 2.70점으로 나타났다. 즉 효율형에 속하는 취업주부의 생활정보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정보활용 능력이 가계재무관리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 Bowen 등(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성역할태도는 효율형과 계획중심형이 3.21점, 비효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가계재무관리유형 특성

배경변인		효율형 (N=297)	계획중심형 (N=126)	수행중심형 (N=101)	비효율형 (N=243)	비 고
연령(세)		37.55	40.20	39.37	40.07	F=6.09***
		A	B	B	B	
학력	중졸	20(6.7)	20(15.8)	32(31.6)	63(25.9)	*** x <sup>2</sup> =22.19
	고졸	63(21.2)	25(19.8)	33(32.6)	95(39.0)	
	대졸	139(46.8)	55(43.6)	22(21.7)	67(27.5)	
	대학원졸	75(25.2)	26(20.6)	14(13.8)	18(7.4)	
직종	생산판매직	67(22.5)	23(18.2)	28(27.7)	72(29.6)	*** x <sup>2</sup> =20.03
	사무직	64(21.5)	23(18.2)	25(24.7)	57(23.4)	
	준전문직	75(25.2)	24(33.3)	30(29.7)	59(24.2)	
	전문관리직	91(30.6)	38(30.1)	18(17.8)	55(22.6)	
가계총소득(만원)		365.76	369.43	373.32	329.40	F=2.43
주부소득 비(%)		.41	.41	.40	.42	F=.65
재무관리지식 (0-9점)		7.05	6.44	6.52	6.04	F=12.95***
		A	BC	B	C	
의사소통도 (1-5점)		4.14	3.83	3.84	3.74	F=10.86***
		A	B	B	B	
생활정보활용도 (1-5점)		3.49	3.07	3.10	2.70	F=67.95***
		A	B	B	C	
성역할태도 (1-5점)		3.21	3.21	2.99	3.09	F=3.01*
		A	A	B	AB	
남편역할분담인지 (1-5점)		2.64	2.48	2.48	2.46	F=4.02**
		A	B	B	B	
생활격차감 (1-5점)		5.54	5.06	5.88	5.51	F=3.00*
		A	B	A	A	
소득적정감 (1-13점)		5.18	5.40	5.00	4.99	F=2.03
직업태도 (1-10점)		3.15	3.31	3.04	3.08	F=4.14**
		A	B	A	B	
취업 동기	경제적	187(62.9)	73(57.9)	57(57.0)	159(65.9)	x <sup>2</sup> =3.65
	비경제적	110(37.0)	53(42.0)	43(43.0)	82(34.0)	

\* 투입요소는 범주형(학력, 직종, 취업동기)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포함한다.

범주형은 x<sup>2</sup> 검정(빈도(%)), 연속형은 F검정(평균/Duncan's)을 하였다.

\*p<.05 \*\*p<.01 \*\*\*p<.001

율형이 3.09점, 수행중심형이 2.99점으로, 수행중심형에 속하는 취업주부가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역할분담인지는 효율형이 2.64점, 계획중심형이 2.48점, 수행중심형이 2.48점, 비효율형이 2.46점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취업주부의 남편역할분담인지도가 높을수록 효율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격차감은 효율형이 5.54점, 계획중심형 5.06점, 수행중심형이 5.88점, 비효율형 5.51점으로 나타났다. 즉 수행중심형에 속하는 취업주부가 생활격차감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격차를 적게 인지할수록 가계재무관리 능력이 높다는 김순미(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취업태도를 살펴보면 효율형은 3.15점, 계획중심형은 3.31점, 수행중심형은 3.04점, 비효율형은 3.08점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중심형에 속하는 취업주부가 가장 긍정적인 직업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계총소득, 주부소득비, 소득적정감, 취업동기는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가계재무관리유형의 Catmod 분석

일반화 로짓 회귀분석<sup>3)</sup>으로 배경변인과 관련하여 종속변인인 가계재무관리유형(효율형·계획중심형·수행중심형·비효율형)의 모델을 구성하여 그 적합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계재무관리유형에 있어 비효율형을 기준으로, 효율형·계획중심형·수행중심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효율형에 비해 효율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 학력, 전문직에 비해 사무직, 재무관리지식, 의사소통도, 생활정보활용도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직 종사자가, 재무관리지식이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높

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는 비효율형에 비해 효율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효율형에 비해 계획중심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 생활정보활용도, 준전문직에 비해 전문직, 직업태도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준전문직에 비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긍정적인 직업태도를 가질수록 비효율형에 비해 계획중심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효율형에 비해 수행중심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 가계총소득, 생활정보활용도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총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비효율형에 비해 수행중심형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배경변인이 가계재무관리 유형별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생활정보활용도와 학력은 비효율형에 비해 효율형, 계획중심형, 수행중심형의 3개 유형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계재무관리 유형별로 유의한 변수값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학력의 경우에는 계획중심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생활정보활용도는 효율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생활정보활용도를 살펴보면,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는 비효율형에 비해 효율형, 비효율형에 비해 계획중심형, 그리고 비효율형에 비해 수행중심형에 속하였다. 즉 가계재무관리 계획과 수행능력이 모두 낮은 비효율형에 비해서 계획과 수행능력이 높은 집단이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Bowen 등(1997)이 가계재무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생활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정도는 가계재무관리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가정일과 직장일의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취업주부는 시간자원이 부족하므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를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탐색하고 평가·판별·수용하는 능력이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에 주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취업주부는 효율적인 가계재무

3) Logistic 회귀분석에서 모델의 적합도는  $-2 \log \text{likelihood ratio}$ 와 Concordant ratio로 추정되며,  $\log \text{likelihood ratio}$ 의 의미는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Concordant ratio가 50% 이상이면 현재의 추정모형으로 관찰치를 적절하게 예측했다고 평가한다(SAS/STAT User's Guide, 1989 ; 김연정, 1998 : 68에서 재인용).

〈표 5〉 가계재무관리유형의 Catmod 분석

배경변인	종속변인		효율형(N=297)		계획중심형(N=126)		수행중심형(N=101)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연령	-.053**	.017	-.033	.030	-.019	.020		
학력	.484**	.166	.809***	.200	.519***	.192		
생산판매직	.425	.283	.180	.362	.319	.335		
사무직	.619**	.228	.285	.301	.270	.270		
준전문직	.187	.170	-.407*	.210	.256	.216		
총가계소득	.000	.000	.001	.001	.002**	.000		
주부소득 대 총소득	.180	1.034	.028	1.226	-.048	1.219		
재무관리지식	.226***	.065	.004	.068	.040	.070		
의사소통도	.284*	.140	-.060	.159	-.016	.160		
생활정보활용도	1.94***	.205	.918**	.209	.818***	.216		
성역할태도	.404***	.158	.098	.190	-.135	.185		
남편역할분담인지	.320	.180	-.134	.211	.069	.211		
생활격차감	.011	.070	-.065	.081	.171	.083		
소득적정감	-.031	.075	.124	.087	-.033	.089		
직업태도	.236	.193	.842***	.242	-.105	.227		
취업동기	.131	.127	.093	.148	-.141	.152		
상수			-8.396		-2.855		-1.833	
Model $\chi^2$					32.19***	df=3		
-2 log likelihood					1465.83			

※ 기준집단 : 비효율형(N=243)

직종            준거집단 : 전문직            비교집단 : 생산판매직 사무직 준전문직

취업동기      준거집단 : 비경제적        비교집단 : 경제적

S.E : Standard Error

\*p<.05 \*\*p<.01 \*\*\*p<.001

관리를 위해 생활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지식, 생활정보지에서 얻는 일상적인 정보, 광고에서의 새로운 정보, 인터넷 등의 다차원적 정보 등을 본인 및 가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학력의 경우에도 학력이 높을수록 비효율형에 비해 효율형, 비효율형에 비해 계획중심형, 그리고 비효율형에 비해 수행중심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한 홍

향숙(1997)과 취업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이 높다고 한 고보선(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한편 연령, 사무직, 재무관리지식, 성역할태도, 의사소통도는 효율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전문직보다 사무직 종사자가,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비효율형에 비해 효율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효율형에 속하는 취업주부는 전문직에 비해 사무직 종사자인 경우로 나타났다. 사무직 취업주부

는 전업주부에 비해 시간자원이 부족하며, 전문직 취업주부에 비해서도 금전자원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상황에 있으므로, 사무직 취업주부 본인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이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생활이나 경제복지수준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문관리직 취업주부는 금전자원 및 가사조력자와 같은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해 가계재무관리의 대체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향상을 사무직 취업주부에 비해 덜 인식한 결과로도 추측된다.

그리고 취업주부의 재무관리지식이 높을수록 비효율형보다는 효율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몇몇 연구들(임정빈 등, 1998; Mugenda et al., 1990; Titus, 1989)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재무지식은 가계재무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가계관리자인 취업주부가 재무관리지식이 많으면 가계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동적인 가계재무관리자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가계관리자의 재무지식의 양이 경제생활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인식이 고조됨으로써,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원하는 적극적인 관리자가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취업주부일수록 비효율형보다는 효율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일과 직장일 중 가정일을 본연의 임무로 여기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주부가 바쁜 일상에서도 가계재무관리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때 시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가계재무관리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비효율형에 비해 효율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계선자·강기정, 1998; Dillar, 1987; Mugenda et al., 1990)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가계재무목표 설정과 자원 할당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실제적인 가계재무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임금의 삭감이나 퇴직 등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부부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이에 관

련한 조정과 합의를 보다 쉽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취업주부가 긍정적인 직업태도를 가질수록 비효율형에 비해 계획중심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자원 획득에 대한 만족과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태도가 가계의 경제복지 향상에 중요하다고 보고한 Varcoe(1990)의 연구에서 보듯,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취업주부 가계의 장단기 재무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동기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총소득은 수행중심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총소득이 많을수록 비효율형에 비해 수행중심형에 속하였다. 즉 이용가능한 자원 중 가계총소득이 많은 취업주부일수록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전제약이 적을수록 재무관리 수행능력이 높다는 김순미(1993)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요소인 가계재무관리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 3.54점(5점 만점)으로 중간점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하위영역의 가계재무관리 계획은 3.42점, 수행은 3.62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획·수행능력의 평균에 따라 유형화한 가계재무관리유형은 효율형이 297명(38.7%), 계획중심형이 126명(16.4%), 수행중심형이 101명(13.2%), 비효율형이 243명(31.7%)이었다.

둘째,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 유형별 특성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과 직종은 가계재무관리유형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직종이 관리·전문직일수록 효율형과 계획중심형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효율형에 속하는 취업주부가 재무관리지식·생활정보활용도·부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중심형에 속하는 취업주부가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역할분담인지도가 높

을수록 효율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격차감은 수행중심형에 속하는 취업주부가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계획중심형에 속하는 취업주부가 가장 긍정적인 직업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계총소득, 주부소득비, 소득적격감, 취업동기는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가계재무관리유형에 대한 Catmod 분석결과, 취업주부의 생활정보활용도와 학력은 비효율형에 비해 효율형·계획중심형·수행중심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재무관리 유형별로 유의한 변수값을 비교한 결과, 생활정보활용도는 효율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학력은 계획중심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경제복지감이 경제적 자원의 관리에 따라 결정되는 오늘날의 경제환경에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은 가정경제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을 유형화한 결과, 취업주부의 30% 이상이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 능력이 낮은 비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주부가 가계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생애에 걸친 장·단기 가계재무 목표의 설정, 합리적인 소비의 실천, 장래를 대비한 자산축적 등에 관련한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효율형·계획중심형·수행중심형·비효율형별로 취업주부를 차별화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우선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각 도구에 의해 유형화된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계획중심형의 취업주부에게는 계획능력의 중요성과 함께 수행능력의 보완을 위한 대책이, 수행중심형의 취업주부에게도 계획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효율형의 취업주부에게는 가계재무관리의 필요성과 계획 및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관련변인 중 생활정보활용도는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서 소득을 포함한 재무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해야 하는 취업주부는 무수한 생활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가계에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 판별과 수용능력을 갖추어 가계의 특성과 가족원의 욕구에 적합한 자원을 획득·관리해야 한다. 즉 취업주부가 이용 가능한 가계 및 직장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시간 자원이 부족하므로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한 정보를 분류·평가하여 정보관리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관리목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푸르게 사는 모임(조선일보, 1997)에서 생활아이디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부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사회공공단체나 정부는 취업주부 가계를 위해 공식성이 있는 생활정보를 선별·제공하고, 취업주부 특성별로 세분화한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부의 취업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취업주부 가계의 가계재무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취업주부의 가계를 위한 가계재무 상담 및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무관리의 계획·수행 능력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4개 집단인 효율형·계획중심형·수행중심형·비효율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유형별로 계획·수행 점수의 편차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취업주부의 직종에 따라 세분화해서 표집된 것에 비해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 유형분석에서는 취업직종별 분석보다는 다른 변수와 같은 비중으로만 분석하였다. 이는 직종별로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ANOVA, CROSSTABS, CATMOD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가계재무관리 유형화 과정을 토대로 취업여부, 직

종별, 가족생활주기 등에 따른 조사대상을 달리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계선자 · 강기정(1998). 도시주부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21-38.
- 2) \_\_\_\_\_ · 박미금(1994).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06-117.
- 3) 고보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4) \_\_\_\_\_ · 이영호(1995).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 5)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6) 김민정(1994). 객관적 가계경제복지와 주관적 가계경제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7)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8) \_\_\_\_\_ · 김연정(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9) \_\_\_\_\_ · 양정선(1994).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45-54.
- 10) 김양희(1997). 여성의 직업의식교육 프로그램. 97 프로그램 개발 200-1. 경기도.
- 11) 박선옥(1996). 가계재정관리 유형에 따른 재정문제와 대처방안.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2) 배희선 · 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 13) 이기영 · 조영희(1992). 관리기능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0(4). 279-292.
- 14) 이승신 · 김기옥 · 김경자 · 심영 · 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서울 : 학지사.
- 15) 이기춘(1988). *소비자교육학*. 서울 : 교문사.
- 16)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17) *조선일보*. 1997. 5. 11.
- 18) 한국여성개발원(1998). *여성통계연보*. '98 연구보고서 230-2.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19) \_\_\_\_\_ (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98 연구보고서 230-9.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20)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21) Alwitt, L. F., & Donley, T. D.(1996). The low-income consumer. London, New Delhi Thousand Oaks.
- 22) Bowen, C. F., Lago, D. J., & Furry, M. M.(1997). Money management in famili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a racial, ethnic, and limited income perspective. *Advancing the Consumer Interest*. 9(2). Fall. 32-42.
- 23) Buehler, C., & Hogan, M. J.(1986). Planning styles in single-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4). 351-366.
- 24) Danes, S. M.(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 : Path Model.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9(4). 282-291.
- 25)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Allyn and Bacon, Inc.
- 26) Dillard, B. L.(1987). Household production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economic circumstances.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Ph.D.
- 27) Fitzsimmons, V. S., Hira, T. K., Bauer, J. W., & Hafstrom, J. L.(1993). Financial Management : Development of Scale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Fall. 257-274.
- 28) Foster, A. C., & Mammen, S.(1992). Impact of wife's employment on service expenditure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6.

- 9-18.
- 29) Garman, E. T., & Fogue, R. E.(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MA : Houghton Mifflin.
- 30) \_\_\_\_\_, Leech, I. E., & Grable, J. E.(1996). The negative impact of employed poor personal financial behaviors on employers.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57-168.
- 31) Geenstein, T. N.(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585-595.
- 32) Heck, R., & Douthitt, R.(1988). Research modeling implications of conceptual frameworks in family management.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262-276.
- 33) Kennickell, A. B., Starr-McCluer, M., & Sunden, A. F.(1997). Saving and financial planning : Some findings from a focus group.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8.
- 34) Linda, F. A., & Thomas, D. D.(1996). *The Low-income consumer adjusting the balance of exchange*. London, New Delhi : Thousand Oaks.
- 35)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Lifestyle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 36) Muske, G. A.(1996).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 real world perspective*. Iowa State Univ. Ph.D. (Abstract).
- 37) Prochaska-Cue K.(1993). An exploratory study for a model of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ty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1-134.
- 38) Rodgers, Ruth-Anne.(1995). *Financial management planning styles among elected households of retirement age women living alone : Is rehearsal an influence?*. Oregon State University. Ph.D
- 39) Royal, J. H.(1995). *Financial well-being : A conceptual model of two north carolina countries*. North Carolina State Univ. Ph.D.
- 40) Rubin, R. M., Riney, B. J., & Molina, D. J.(1990). Expenditure pattern differential betwee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 1972-1973 and 1984. *J of Consumer Research*. 17. 43-52.
- 41) Sumarwan, U., & Hira, T. 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42)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43) Varcoe, K. 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57-69.
- 44) Walson, C. O.(1991). *Determinants of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An analysis of a composite measure*. University of Illinois. Ph.D.
- 45) \_\_\_\_\_ & Fitzsimmons, V. 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